



국무총리 온 날, 두쪽 난 제주섬

제주도청 방문 시간대 제2공항 찬·반 집회 경찰, 양측 충돌 우려해 인력 150여명 동원

정세균 국무총리가 온 날 제주도가 두 쪽이 됐다.

지난 19일 오후 4시 제주도청에는 팽과리와 북, 징, 엠프에서 나오는 음악소리로 가득했다. 제2공항 찬·반 단체가 정문 앞에서 10여m 사이를 두고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이날 집회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주도청에서 열리는 제주도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뤄진 것인데, 찬·반 양측은 국무총리에게 각자 갖고 있는 제2공항 관련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질 것을 우려, 경찰은 인력 150여명을 투입해 만일에 있을 사태에 대비했다.

먼저 제주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국정운영의 필수 조건”이라며 “따라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을 국토부에

강력히 주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 결과를 국토부가 즉각 존중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책임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제2공항 계획의 사전정보 유통과 이에 따른 투기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명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제2공항건설촉구범도민연대 및 성산읍청년희망포럼은 “연예인 인기투표하듯 여론조사 결과만 갖고 국토부와 제주도를 압박하는 반대 측 행태는 도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하고,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도민 갈등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성산읍을 포함한 제주 동부지역이 마을소멸위험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며 실제 청년들이 떠나가고 그에 따른 소득불균형 및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2공항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다음날인 20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앞 도로에서 촛불 집회를 개최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40대 女 빌라 방화 이웃 주민 8명 다쳐

서귀포경찰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에 불을 질러 이웃 등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49·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전 11시53분쯤 서귀포시 동흥동 4층 빌라에 불을 질러 자신은 2도 화상을 입고 B(50)씨 등 8명(타박상 1, 연기흡입 7)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다.

1층 A씨의 집 안방 침대에서 시작된 불은 A씨의 집 절반가량을 태우고, 2-3층까지 피해를 입힌후 119에 의해 낮 12시30분쯤 진화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표선 해안 식생복원사업 서귀포문화사업회 관계자들이 20일 표선해안가 일대에서 식생복원사업의 일환으로 황근과 암대극, 갯패랭이 등 1500주를 식재했다.

또 음주운전 사망사고...

30대 보행자 음주차량에 치여 숨져

주말 동안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21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쯤 제주시 아라1동 제주여자고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안모(35)씨가 김모(25)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를 특가법상 치사 혐의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자제한 사

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20일 새벽 1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주도로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가로수가 쓰러지고 근처 상가 벽면이 일부 파손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오늘 백신접종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달 1일 제주시 한라체육관 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개소를 앞두고 22일 오전 9시부터 실전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실제 예방접종 상황을 가정해 접종센터 내 백신 보관·준비 과정부터 접수·예진, 접종 직후 이상반응 모니터링까지 각 단계별로 실습·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원은 의사 4명, 간호사 8명, 응급구조사 1명, 행정직원 10명, 접종대상자 30명 등 60여명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각 과정별 소요시간과 시간당 적정 인원 등을 추산하고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강대희기자

제주공항 발열감시로 코로나 감염 확인

수도권 거주자로 18일 입도... 진단검사 후 확진 판정 확산 우려되던 호텔發 코로나 진단검사결과 전원 음성

주말 사이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9-20일 이틀간 2명(제주 615·616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선 지난 18일을 제외하고 3월 1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확진자가 발생해 이달 들어 4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616명이다.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615번은 수도권 거주자로, 지난 18일 오후 일행 3명과 함께 제주행 항공기를 타고 입도했다. 입도 직후 제주국제공항 발열감시 과정에서 발열자로 분류돼 워크스루에서 진단 검사를

받았다.

제주 공·항만 발열 감시를 통해 확진자를 발견한 것은 지난 493번과 579번 확진자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616번은 서울 강서구 확진자의 접촉자다. 616번은 지난 18일 오전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를 타고 입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616번은 제주에 온 다음 날인 19일 지인이 강서구에서 확진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강서구 확진자와의 만남은 13일 이뤄졌다.

한편 지난 17일 확진자가 근무한 제주 신라호텔의 직원 516명과 방문 이력자 151명 등 총 66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상민·강대희기자

JDC 직원 비축토지 매입 비위 의혹

회사측 관련직원 계좌서 수상한 돈 포착 수사외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직원이 비축토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엉터리로 땅 값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주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JDC가 토지주 9명에게 지급하는 전체 땅 값에는 변동이 없지만 소유자 별로는 원래 받아야 할 대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

JDC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비축토지 관련 징계 요청을 받은 직원 4명 중 중징계 대상자로 분류된 간부급 직원인 A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또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JDC 토지매입 전반에 대한 특검사를 감사실에 요청했다.

국토부 감사결과 이런 방식으로 토지주 9명 중 6명은 원래 갖고 있는 땅에 비해 더 많은 대금을, 3명은 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6명이 증여세 42억60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초래됐으며, JDC 직원인 A씨는 토지주들의 이런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다.

JDC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12월 4일 토지주 9명으로부터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일대 31만 826㎡, 48필지를 매입해 대금으로 495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 지침을 여겼다.

JDC는 국토부 감사결과를 토대로 토지주들이 처음부터 세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필지를 임의대로 조정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조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 또 A씨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1억6100여만원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토지주 9명은 친인척 관계로 이중 6명이 자신이 소유한 땅을 임의대로 조정해 줄 것을 A씨 등 JDC 직원에게 요청했다.

예를 들어 48필지 중 토지주 B씨가 2필지, B씨의 친척인 C씨가 4필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지만 이들이 서로 합의해 각각 3필지씩 소유한 것처럼 임의대로 조정된 뒤 조정된 발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강대희기자

국토부 감사 결과에 대해 문대림 JDC 이사장은 “취임 전 발생한 사안이지만, 감사 결과대로 관할 경찰서에 즉각 수사 의뢰했고 과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비축토지 매입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비위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그랜드 보청기

2021히트브랜드대상 품앗이 특가할인!

2021 히트브랜드 대상 1위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중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O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빌딩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제주시청 CGV 광안사거리

☎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안사거리)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황금향대조품종(품질이 쉽게 벗겨진다.) (FTA)기금 우량 품종 경선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리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마봉, 금귤 등유자, 아미나스, 미니문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중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리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리조생	1,2,3년생
감평	1,3,4년생
방자묘목	1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